

# 강원도 홍천지역 언어문화 연구

A Study on the Linguistic Culture of Hongcheon Area in Gangwon-do

최홍열\*

**국문요약** 본고는 강원도 홍천지역이 중부방언의 공통성을 지니면서도 차이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홍천 지역어의 음운, 어휘, 문법, 의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홍천 지역의 3개면 5개 마을에서 7명의 제보자를 통해 홍천 지역어를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홍천 지역어의 음운, 어휘, 문법, 의미는 중부방언이기 때문에 중부방언의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음소에 있어서는 성조는 나타나지 않으며, ‘어(ə)’를 ‘으:(i:)’로 ‘ㄷ(jə)’는 ‘ㄱ(ji)’로 바꾸어 길게 발음한다. 둘째 자음의 교체 현상은 어두경음화, 격음화 현상은 남부방언보다도 덜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강원 지역의 방언과 비슷하게 일어나며, 특히 ‘ㄱ’이 ‘ㅈ’으로 변화하는 구개음화 현상은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셋째 모음교체는 움라우트 현상이 다른 지역과 거의 같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모음의 교체는 전설모음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우세하다. 넷째 어휘의 특징은 고유어의 어휘를 한자어로 교체한 경우가 대단히 많았으며, 고어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보인다. 다섯째 어휘의 의미적인 면에서 방언형이 표준어에 비해 대상을 더 명확히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며, 의미영역을 달리하는 몇 가지 어휘들을 검토하였는데 표준어와 비교하여 세분화된 어휘들이 있었고, 전혀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었다.

**핵심어** 방언, 홍천지역, 음운론, 문법, 의미론

\*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1. 서론
2. 조사 방법과 제보자
3. 홍천 지역어의 특징
  - 3.1. 음운론적 특징
  - 3.2. 문법론적 특징
  - 3.3. 어휘론적 특징
  - 3.4. 의미론적 특징
4. 결론

## 1. 서론

방언은 한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 전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투리라고도 한다. 특성상 같은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같은 하나의 방언권으로 분류한다. 홍천 지역어는 큰 방언권으로 나누면 중부방언권<sup>01</sup>에 속한다.

강원도 방언권은 태백산맥을 분계선으로 하여 강원도를 동서로 양분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그에 따라 강원도는 크게 영서방언권과 영동방언권으로 나뉜다.

강원방언은 다시 영서방언과 영동방언으로 나뉘며, 영서방언은 표준어에 가깝지만 영동방언은 표준어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강원방언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특성상 태백산맥을 분

01 중부방언에 대한 명칭은 황해, 경기, 강원, 충청도를 포함하는 '경기방언'(小倉進平, 1924, 1944)의 설정을 기점으로, '중선방언'(河野六郎, 1945)으로 불려지기도 하였고, 아직까지 우리 학계에서 그 명칭과 개념 및 방언구획의 문제에 대하여 학자 간에 일치를 보지 못한 채 다소 막연히 쓰고 있는 명칭이지만 본고에서는 그 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부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수령으로 서쪽에 위치한 영서지방, 동쪽에 위치한 영동지방으로 구분된다. 영동방언권과 영서방언권을 군별로 소속시키면 영서방언권에는 철원, 화천, 춘천, 양구, 인제, 홍천, 횡성, 원주가 속하며, 영동방언권에는 고성, 속초, 양양, 강릉, 삼척, 동해, 태백, 평창, 정선, 영월이 속한다.

강원도에서 홍천은 도내에서도 특히 산이 많고 인구가 희박한 지역으로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 등 1개 읍 9개 면 105개 동리로 되어 있다. 홍천은 강원도의 중심 지역으로 서로는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과 접해 있고, 동으로는 양양군과 강릉시가 접해 있으며 북으로는 춘천시와 인제군이, 남으로는 횡성군과 평창군이 접해 있는 지역이다. 이처럼 홍천군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어, 서로는 경기도와 접해 있고 동으로는 영동지방과 접해 있어 강원 방언의 독특한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본고는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홍천지역이 중부방언의 공통성을 지니면서도 차이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홍천 지역어의 음운, 어휘, 문법, 의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방언 조사 연구는 방언차의 비교를 통한 국어사의 재구성과 국어의 공통 구조의 해명, 나아가서 그 일반원리의 탐구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최근에는 교육, 교통의 편리함, 마스크 보급 등의 원인으로 지역적 방언차가 급속히 좁혀져 방언 자료들이 소멸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홍천 지역어에 대한 연구는 70~80년대 3개의 논문이 있으며, 최근에는 방언 조사가 없었다.<sup>02</sup> 정호원<sup>1976</sup>에서는 내면지방을 중심으로 음운체

02 정호원, 「강원도 홍천 방언의 음운체계 연구: 내면지방을 중심으로」, 충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계에 대한 연구를 했으며, 원훈의<sup>1988a,b</sup>에서는 홍천 지역어의 음운과 어휘에 관한 연구에만 치우쳐 있다. 홍천 지역은 강원도의 중심에 위치하며 동서로 길게 뻗어 있어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홍천 지역의 방언 연구는 강원도 방언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 2. 조사 방법과 제보자

홍천 지역어에 대한 내용을 집필하기 위해서는 방언 답사가 매우 중요하다. 방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자료를 직접 새로이 수집하는 일을 수반한다. 남이 이미 모아 놓은 자료를 근거로 어떤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내는 일은 방언 조사에 있어서는 정도가 아니다.

방언조사의 질문지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에서 출간한 『한국방언조사질문지』로 하였으며, 조사항목은 어휘 720개, 문법 85개, 어휘 20개의 전 항목을 중심으로 하였다. 또한 필자가 그간 강원도 일부 지역의 방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지역의 음운, 어휘상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하였고 몇 가지의 형태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간접 질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질문 방식은 『한국방언조사질문지』에 있는 그림이나 사물 등을 가리키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게 뭐지요?’ 식으로 묻는 명명식 질문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문법이나 음운의 자료를 찾기 위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원훈의, 「강원도 방언연구(5): 홍천군 방언의 음운을 중심으로」, 『논문집』 28, 춘천교육대학, 1988; 원훈의, 「강원도 방언연구(5-2): 홍천군 방언의 어휘를 중심으로」, 『관동향토문화연구』 6, 춘천교육대학, 1988.

질문의 내용은 홍천군의 주요 경제 수단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어휘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그와 더불어 의식주와 관련되는 것, 가족들을 조사하면서 제보자들이 쉽게 제보할 수 있고 친근감을 느끼도록 유도하였다.

조사지점과 제보자는 홍천군 일대를 중심으로 답사 지점은 여건상 한 개 면에서 한두 마을을 택하여 방언형이 많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으로 하였으며, 제보자는 서석면 풍암1리 이장 김기환(58세)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60세가 넘는 홍천에 거주하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였다.<sup>03</sup>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홍천군 토박이거나 할머니들로 홍천 지역 내에서 시집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다. 간혹 치아가 고르지 못하신 분이나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을 제보자로 선정하여 조사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몇몇 지역은 조사 후 그 지역 젊은이들을 통한 확인 작업이 있기도 하였다.

### 3. 홍천 지역어의 특징

#### 3.1. 음운론적 특징

##### 3.1.1. 음소

한국어의 음소는 고저장단<sup>高低長短</sup> 중에서 음장과 성조를 가지고 있다. 강원도는 성조가 쓰이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 성조가

<sup>03</sup> 서석면 풍암1리 김기환(남, 58세) / 박흥균(남, 81세)  
서면 두미리 권예중(남, 78세) / 모곡4리 남궁주(남, 69세)  
두촌면 자은리 최한례(여, 93세) / 최한선(남, 73세) / 칠정리 송익재(남, 69세)

나타나는 지역은 대개 삼척, 강릉을 비롯하여 영월, 정선, 평창 등지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sup>04</sup> 홍천군은 동쪽으로는 양양군과 강릉시가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횡성군과 평창군이 접해 있어서 주변 언어에서 성조를 습득할 수 있지만 성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홍천 지역어는 단모음을 장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홍천군에서는 ‘없다, 어른, 언제, 어디’ 등의 ‘어(ə)’가 ‘으:(i:)’로 실현되어 ‘읍:따, 으:른, 은:제, 으:디, 읍:마’로 나타난다.

(1)

없다 → 읍:따(i:pt'a)                      어른 → 으:른(i:rin)

언제 → 은:제(i:nce)                      어디 → 으:디(i:di)

얼마 → 읍:마(i:lma)

또한 ‘ㄷ(jə)’는 ‘ㄱ(ji)’<sup>05</sup>로 바꾸어 길게 발음해서 ‘영감, 영례, 여드름, 경상도’를 ‘/jɪ:ŋgam/, /jɪ:ŋlje/, /jɪ:dirim/, /kji:ŋsando/’로 나타낸다. 이러한 발음 현상은 다른 방언보다 많은 편이다.

04 김차균, 「삼척 방언과 울진 방언 성조의 비교」, 『언어학』 22, 한국언어학회, 1998, 123~169쪽; 강홍구, 「삼척방언 성조와 음조에 대한 연구」, 『개신어문연구』 20, 개신어문학회, 2003, 47~69쪽; 김주원, 「강원도 동해안 방언 성조의 특성」, 『민족문화논총』 27, 영남대, 2003, 249~283쪽; 강홍구, 「삼척방언과 울진방언 성조체계의 비교」, 『언어학연구』 8, 2004, 한국중원언어학회, 5~39쪽; 김차균, 「삼척 방언과 울진방언 방언의 성조 체계 비교」, 『한글』 268, 한글학회, 2005, 5~60쪽; 최영미, 「정선방언 운율유형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73, 어문연구학회, 2012, 127~160쪽; 최영미, 「평창방언 체언의 성조 연구」, 『한말연구』 35호, 한말연구학회, 2014, 261~296쪽; 최영미, 「평창 방언의 성조 연구」, 『한글』 308, 한글학회, 2015, 31~84쪽; 최영미, 「평창방언 용언의 성조 연구」, 『겨레어문학』 54, 겨레어문학회, 2014, 331~373쪽; 최영미, 「강원방언 성조의 인지에 대한 방언차 연구」, 『한말연구』 46, 한말연구학회, 2017, 207~237쪽; 김봉국, 「강원방언의 성조」, 『방언학』 28, 한국방언학회, 2018, 39~62쪽.

05 ‘ㄷ(jə)’을 장음으로 발음할 때는 ‘ㅣ’음 후에 ‘ㅡ’ 발음의 연속으로 들리므로 ‘ㄱ(ji)’로 표시한다. ‘ㄱ’는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나타난다.

(2)

영감 → 영:감(ji:ŋgam)

영례 → 영:례(ji:ŋje)

여드름 → 이드름(ji:dirim)

경상도 → 강상도(kji:ŋsando)

### 3.1.2. 음운체계

#### 3.1.2.1. 자음

##### 3.1.2.1.1. 자음체계

홍천 지역어의 자음체계는 표준어와 발음 위치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경음화, 구개음화, 격음화, 자음교체, 자음탈락 등과 같은 음운변화로 인해 어휘의 형태에서 표준어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만 자음의 체계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아 19개의 자음이 그대로 쓰인다. 그 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음운의 전사는 IPA기호를 따르되 조금 차이를 둔다.<sup>06</sup>

조음위치 조음방식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후음)
파열음	ㅂ(p) ㅃ(pʰ) ㅍ(pʰ)	ㄷ(t) ㅌ(tʰ) ㄸ(tʰ)		ㄱ(k) ㅋ(kʰ) ㆁ(kʰ)	
파찰음			ㅈ(c) ㅊ(cʰ) ㅉ(cʰ)		
마찰음		ㅅ(s) ㅆ(sʰ)			
비음	ㅁ(m)	ㄴ(n)		ㅇ(ŋ)	
유음		ㄹ(r)			

06 'ㄷ, ㅌ, ㅉ'의 계통의 음운은 IPA기호에서 쓰는 't'는 'c'와 조금 다르게 발음되므로 본고에서는 'ㄷ' 계통을 'c'로 전사한다.

### 3.1.2.1.2. 자음의 교체

홍천 지역어의 자음의 교체나 자음 변화는 모음에 비해 두드러지는 않지만 여러 유형으로 실현된다. 자음교체의 경우에는 어떤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므로 발음적 차이는 나타나지만 의미의 변화는 없는 것을 의미한다.

#### (3) ㄱ>ㅅ 형

키 → 치(chi)	김치 → 짐치(cimchi)
밀기울 → 밀지울(mildgiul)	기둥 → 지둥(cidun)
결혼 → 절혼(cəlhon)	번데기 → 번데지(pəndədʒi)
깃 → 짓(cit)	결두리 → 전누리(cennuri)
집다 → 집타(cipta)	김매다 → 짐매다(cimmenda)
씻기다 → 씻친다(s'ic'hinda)	

#### (4) ㅎ>ㅅ 형

혀 → 세(se)	형 → 성(səŋ)
형님 → 성님(səŋnim)	

홍천 지역어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ㅁ이’가 ‘마지’로 발음되는 것처럼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ㅣ[j]’계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인 ‘ㅅ’, ‘ㅆ’이 되거나, ‘ㄷ’ 뒤에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ㅆ’으로 변화되는 현상인데, 홍천 지역어에서는 (3)처럼 연구개음인 ‘ㄱ’이 구개음인 ‘ㅅ’으로 발음되거나, (4)처럼 후두음 ‘ㅎ’이 치경구개음

인 ‘ㅅ’으로 교체되는 현상까지를 포함한다. 홍천군 방언에서도 ‘ㄱ’이 ‘ㅅ’으로 변하는 현상은 경상도 방언이나 전라도 방언처럼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ㄱ’이 ‘ㅅ’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i’나 ‘i’계 모음을 만나면 초성에서도 바뀌어 발음된다.

(5)

두렁이 → 투렁이(tʰureŋi)	구린내 → 쿠린내(kʰurinne)
도 → 퇴(tʰø)	갈치 → 칼치(kʰalʰci)

홍천 지역어에는 (5)처럼 평음 ‘ㄱ’, ‘ㄷ’, ‘ㅂ’, ‘ㅅ’이 격음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격음화라 한다. 어두보다는 어중에서 종성 ‘ㅎ’음과 장애음 계통의 뒤음절 초성의 ‘ㄱ, ㄷ, ㅂ, ㅅ’이 결합하여 ‘ㅋ, ㅌ, ㅍ, ㅊ’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음운현상과는 달리 어두음의 평음이 격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6)

시래기 → 씨래기(sʰireŋi)	고갱이 → 꼬개이(kʰokɛi)
도랑 → 또랑(tʰoraŋ)	고린내 → 꼬랑내(kʰoraŋne)
깨구리 → 깨구리(kʰɛguri)	두꺼비 → 뚜께비(tʰukʰebi)

홍천 지역어에서는 (6)처럼 ‘씨래기, 꼬개이, 또랑, 꼬랑내, 깨구리, 뚜께비’가 나타나는데, 평음이 경음된소리으로 변하는 경음화 현상이다. 파열음 계통의 평음 ‘ㄱ, ㄷ, ㅂ’이 어두에서 된소리인 ‘ㄱ, ㄷ, ㅂ’으로 발음된다. 이 현상은 현대국어의 일반적인 경향이면서도 지역 방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7)

- ① 삼태기 → 삼태미(samt<sup>h</sup>emi)      목침 → 몽치미(moŋtʃ<sup>h</sup>imi)
- ② 굽도리 → 굽두지(kuptudʒi)      얼레빗 → 얼게빗(əlgebit)
- ③ 구멍 → 구녕(kuŋyŋ)

이외에도 (7)처럼 자음교체가 된 어휘들이 많이 나타난다. (7①)은 /ㄱ/이 /ㅁ/이나 /ㅇ/으로 교체된 형태이며, (7②)는 /ㄹ/이 /ㅅ/과 /ㄱ/으로 교체되었으며, (7③)은 /ㅁ/이 /ㄴ/으로 교체된 형태이다. 이처럼 자음 교체가 여러 어휘에서 나타난다.

### 3.1.2.1.3. 자음의 첨가

(8)

- ① /k/ 첨가: 어레미 → 얼게미(əlgemi)      고무래 → 고무래(komulge)
- ② /n/ 첨가: 부추 → 분추(punčʰu)
- ③ /ŋ/ 첨가: 추녀 → 층여(č<sup>h</sup>uŋyŋ)
- ④ /p/ 첨가: 또아리 → 또바리(t<sup>h</sup>obari)
- ⑤ /h/ 첨가: 언청이 → 헤챙이(heč<sup>h</sup>enji)

(9)

- ① 가위 → 가새(kasɛ)      마을 → 마실(masil)
- ② 다리 → 달비(talbi)

③ 나무 → 낭구(nangu)

홍천 지역어에서는 자음이 첨가되는 변화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8①)의 ‘얼게미, 고물개’처럼 ‘ㄱ/k/’이 첨가되어 발음되며, (8②)는 ‘부추’를 ‘분추’로 ‘ㄴ(n)’이 첨가되어 쓰이고, (8③)의 ‘추녀’를 ‘충녀’로 ‘ㅇ(ŋ)’이 첨가되어 쓰인다. 또한 (8④)는 ‘짐을 머리에 이고 다닐 때 머리에 받치는 고리 모양의 물건’인 ‘또아리’를 ‘또바리<sup>t'obari</sup>’라고 한다. (8⑤)의 ‘언청이’를 홍천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강원도 지방에서 ‘헤청이<sup>hecheni</sup>’로 쓰이면서 ‘ㅎ/h/’을 첨가하여 쓴다.

(9)처럼 ‘가위’를 ‘가새’라 하고, ‘마을 간다’를 ‘마실 간다’라고 쓰거나 예전에, 여자들의 머리숱이 많아 보이려고 덧붙였던 땀 머리를 ‘다리’라고 하는데, 홍천에서 ‘달비<sup>talbi</sup>’로 쓴다. 홍천 지역에서도 경상도나 충청도 방언에 나타나는 소실문자 ‘ㅅ, ㅃ’의 흔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현대국어의 표준어에는 없지만 방언형에서 ‘ㅅ’과 ‘ㅃ’이 첨가되어 나타난다. 또한 (9③)처럼 중세국어에 ‘ㄱ’극용의 형태였던 것이 ‘ㄱ’이 소실되었다가 방언형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다.<sup>07</sup>

3.1.2.1.4. 자음의 탈락

(10)

/c/ 탈락 : 광주리 → 광우리(kwanjuri)

07 나무의 중세어는 나무, 나무이 쓰였다. “불휘 기픈 남근 부락매 아니 뭇씩 굿 도코 여름 하느니”(『1447 용가 2』).

자음이 첨가되는 경우와는 반대로 자음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 둘 이상의 음절이나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음절이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음절이나 음운이 탈락되어 나타나는 단어들이다. ‘대, 짜리, 버들 따위를 재료로 하여 바닥은 둥글고 촘촘하게, 전은 성기게 엮어 만든 그릇’인 ‘광주리’를 홍천 지역에서는 ‘광우리kwawuri’로 부른다.

### 3.1.2.2. 모음

#### 3.1.2.2.1. 모음체계

전국적으로 모음체계는 방언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상도 방언이나 제주도 방언에서는 ㅐ(ɛ)와 ㅑ(ɛ)가 /E/로 실현되기도 한다.<sup>08</sup> 그러나 강원도 홍천 지역어에는 ‘ㅐ’가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는 있지만 중부방언의 모음체계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홍천 지역어의 모음체계는 대다수 10모음 체계를 가진다.<sup>09</sup>

	전설모음		후설모음	
	비원순	원순	비원순	원순
고	ㅣ [i]	ㅡ [y]	ㅏ [ɨ]	ㅜ [u]
중	ㅑ [ɛ]	ㅓ [ø]	ㅓ [ɔ]	ㅗ [o]
저	ㅕ [ɛ]		ㅓ [a]	

중모음의 경우는 반모음 ‘w’, ‘j’와 단모음이 상승적 방향과 하강적 방향에 의하여 결합하여 나타난다.

08 허웅, 『국어음운학』, 정음사, 1965, 191쪽.

09 이익섭, 『영동영서의 언어분화』, 서울대 출판부, 1981, 92쪽.

j 계 상승적 중모음 : ㅏ(ja) ㅓ(jø) ㅗ(jo) ㅜ(ju) ㅟ(je) ㅢ(je)

w계 상승적 중모음 : ㅘ(wa) ㅙ(wø) ㅚ(we) ㅜ(we)

j 계 하강적 중모음 : ㅓ(ij)

또한 이중모음으로 앞에서 논의한 (2)처럼 경상도 방언에 나타나는 이중모음 ‘ㄱ[ji]’가 몇 어휘에 장음으로 나타난다.

### 3.1.2.2.2. 모음교체

홍천 지역어의 모음의 교체나 모음 변화는 자음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 여러 유형으로 실현된다. 본고에서는 방언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는 만큼 표준어와 비교하여 홍천 지역어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홍천 지역어는 다른 영서 지역의 방언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11)

- ① 누더기 → 누데기(nudegi)      엉덩이 → 엉텅이(əŋdeŋi)
- 두드러기 → 두드레기(tudiregi)      홀아비 → 홀애비(horebi)
- 고기 → 궤기(køgi)      피라미 → 피라미(pʰiremi)
- 두꺼비 → 뚜께비(tʰukʰebi)      구더기 → 구데기(kudegi)
- ② 먹이다 → 멕이다(megida)      맏기다 → 맨기다(mætkida)

홍천 지역어에서는 (11)처럼 앞의 단어 또는 어절에 있는 ‘ㅏ(a), ㅓ(jø), ㅗ(o), ㅜ(ø)’ 등의 후설모음이 다음 음절에 오는 ‘ㅣ(i)나 ‘ㅣ(i)’계 모음의 영향을 받아 전설모음 ‘ㅟ(ɛ), ㅢ(e), ㅜ(ø)’ 등으로 변하는 움라우트 현상

으로 18세기 근대국어 이후 발생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0</sup> 이러한 현상들은 노인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청소년층에서는 ‘고기, 영덩이’와 같은 단어에서는 움라우트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표준어 교육이나 대중매체의 보급 등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다.

또한 (11②)처럼 사동형이나 피동형을 만드는 선어말어미 ‘-이-, -히-, -리-, -기-’ 등이 붙은 사동사들이 이러한 움라우트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12)

쇠스랑 → 쇠시랑(sosirang)	이슬비 → 이실비(isilbi)
국수 → 국시(kuksi)	골무 → 골미(kolmi)
화로 → 화리(hwari)	사레 → 사리(sari)
창자 → 창지(cʰaŋdʒi)	

예 (12)는 후설모음(우(u), 오(o), 으(i), 아(a), 어(ə)) 등이 전설모음(이(i), 예(e), 외(ø), 애(ɛ))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경우와 저모음이면서 개모음이 고모음이면서 폐모음으로 교체되어 실현된다. 후설모음 ‘우(u), 으(i), 오(o), 아(a)’가 전설고모음 ‘이(i)’로 교체되어 실현된다. ‘국시(국수), 골미(골무)’는 ‘우(u)’가 ‘이(i)’로 교체된 것이고, ‘쇠시랑(쇠스랑), 이실비(이슬비)’는 ‘으(i)’가 ‘이(i)’로, ‘화리(화로)’는 ‘오(o)’가 ‘이(i)’로, ‘창지(창자)’는 ‘아(a)’가 ‘이(i)’로, ‘사리(사레)’는 ‘예(ɛ)’가 ‘이(i)’로 교체되는 예들이다.

10 김원진, 『국어음운체계의 연구』, 일조각, 1971, 17쪽.



달팽이 → 들팽이(tilp<sup>h</sup>ɛŋi)

② 보습 → 버섭(pəsəp)

보리 → 버리(pəri)

③ 뚜껑 → 따깡(t'ak'aŋ)

우수리 → 우사리(usari)

거머리 → 그마리(kimari)

재봉틀 → 자방틀(cabəŋ<sup>h</sup>il)

예 (15)는 중설모음 ‘으(i)’나 ‘어(ə), 아(a)’로 교체된 것으로 이들 모음 교체도 대다수 후설모음 ‘어(ə)’, ‘우(u)’, ‘오(o)’가 중설모음으로 교체된 경우가 많고, 같은 중설모음이라도 개구도가 큰 개모음이 개구도가 작은 폐모음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15①)의 그머리(거머리), 드레박(두레박), 들팽이(달팽이) 등은 후설모음 ‘어(ə)’, ‘우(u)’, ‘오(o)’가 중설모음 ‘으(i)’로 교체된 것이다. (15②)의 ‘오(o)’가 ‘어(ə)’로의 교체는 원순모음인 ‘오(o)’가 비원순모음인 ‘어(ə)’로 변하는 것으로 ‘보습’을 ‘버섭(pəsəp)’으로, ‘보리’를 ‘버리(pəri)’로 나타낸다. 또한 (15③)은 ‘우(u)’, ‘어(ə)’, ‘애(ɛ)’가 ‘아(a)’로 교체되어 실현되는데 ‘따깡(뚜껑), 우사리(우수리), 그마리(거머리), 자방틀(재봉틀)’ 등이 이에 속한다.

(16)

① 사마귀 → 사마구(samagu)

기저귀 → 지저구(cidʒəgu)

흰자위 → 흰자우(hiyndʒau)

까마귀 → 까마구(k'amagu)

썸바귀 → 썸바구(s'imbagu)

바위 → 바우(pau)

② 호미 → 호무(homu)

굽도리 → 굽두지(kuptudʒi)

그루 → 구루(kuru)

③ 쇠스랑 → 소시랑(sosiraŋ)

바구니 → 보구니(poguni)



(18)

못자리 → 못자리판(modʒaripʰan)    쇠 → 쇠뿔(søk'op)

벽 → 베룸빡(perump'ak)            샘 → 샘물(sɛmmul)

짚신 → 짚세기(cipʰsegi)            가르마 → 가름배(karimbe)

예 (17)은 홍천 지역에서는 모음교체 이외에도 모음이 첨가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17①)의 ‘조이(조)’, ‘고드름미(고드름)’는 ‘이(i)’가 첨가되어 쓰인 것이고, (17②)의 ‘무우(무)’는 ‘우(u)’가 첨가되어 쓰인 것이다. (17③)의 ‘멸치’는 홍천 지역에서는 ‘메르치(mericʰi)’로 ‘으(i)’가 첨가되어 쓰인다. 이러한 모음첨가는 발음상 길게 하려는 습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8)처럼 홍천 방언에는 자음이나 모음의 음운 첨가가 아닌 어휘에 음절을 더하여 발음하는 것들도 있다.

#### 3.1.2.2.4. 모음의 탈락

(19)

새암 → 샘(sɛm)                            시누이 → 시누(sinu)

꾸러미 → 꾸름(k'urim)                세수대야 → 세수때(sesut'ɛ)

회오리바람 → 회리바람(horibaram)

(20)

부젓가락 → 분가리(putkari)            노끈 → 노(no)

사닥다리 → 사다리(sadari)            머리카락 → 머리칼(mərik'al)



밭에 → 바체(bac<sup>h</sup>e)/바세(base)      밭을 → 바츨(bac<sup>h</sup>il)/바슬(basil)

(21)처럼 ‘숯’은 ‘숫’이나 ‘ㅌ’이 뒤에 ‘이(i)’나 ‘이(i)’계 모음과 결합하면 ‘치’로 구개음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한글맞춤법에 맞는 것이지만 조사 ‘-을’과 결합하면 ‘숫/숯/숯’ 등이 임의적으로 쓰인다. ‘밭’도 ‘밭’이나 ‘밭’으로 중화되어 쓰이는데 조사 ‘-을, -에’와 결합하면 보수적으로 ‘밭’이 쓰인다.

(22)

말다 → 말다(malda)                      물다 → 물다(mulda)  
밟다 → 밟다(palta)                      읽다 → 읽다(ilt'a)

또한 (22)처럼 표준어 발음과 다른 받침의 발음이 나타난다. 표준발음법 규정에 겹받침 ‘ㄸ’, ‘ㄴ’, ‘ㄹ’, ‘ㄹ’,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ㅃ]으로 발음하며, ‘ㄹ’, ‘ㄹ’,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고 되어 있다. 강원도 방언에서는 ‘말다, 물다, 읽다’는 모두 받침이 ‘ㄹ’이므로 ‘막따(mak<sup>t</sup>a), 목따(muk<sup>t</sup>a), 익따(ikt<sup>a</sup>)’가 되어야 하지만 ‘ㄹ(l)’로 발음이 되며, ‘밟다’도 받침이 ‘ㄹ’이므로 ‘밟따(papt<sup>a</sup>)’로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홍천 지역어에서는 ‘말다(말다), 물다(물다), 밟다(밟다), 읽다(읽다)’처럼 대부분 받침이 ‘ㄹ(l)’로 나타난다. 또한 겹받침 ‘ㄹ’의 ‘흙’은 단독 쓰일 때는 ‘흑’으로 발음되고, ‘흙+이’가 되면 ‘흙기’로 발음해야 하는 것이 맞춤법 규정인데, 몇 개의 면 단위 지역에서는 ‘흑이’로 발음하는 경우가 보인다.

### 3.2. 문법론적 특징

홍천 지역어의 특징은 대부분 음성학과 음운론에 치중되어 있고 문법적인 특징은 매우 드물다. 조사의 경우는 표준어와 대부분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23)

엄마한테 물어보렴.

바چه 가서 술 몰구 와유.

이 쟁기 창구에다가 두고 와유.

저 녀석 은제꺼정 놀구 먹을 거야?

(23)처럼 몇 개의 격조사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여격 조사 ‘-에게’를 ‘-에게’와 ‘-한테’로 많이 쓰며, 목적격 조사 ‘-를’을 ‘-르’만 쓰기도 한다. 처소격 조사의 ‘-에’를 ‘-애, -에다/-에다가’를 쓰는 경우가 여러 지역에서 보인다. 특수조사에서는 ‘-까지’를 ‘-꺼정’으로 발음한다.

종결어미도 대다수 특별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없다. 의문형 종결어미는 강릉, 삼척, 평창, 정선 등의 지역에서는 “니 어데 가나?”처럼 ‘-나’가 쓰이지만, 홍천 지역어에서는 ‘-니’가 쓰인다. ‘-니’는 강원도를 동남 지역과 서북 지역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3)에 나타나는 것처럼 연결어미의 경우에는 ‘-고, -ㄴ다고’를 ‘-구, -ㄴ다구’로 쓰기도 한다.

문법적인 특징에서 논의되는 것이 상대경어법의 화계에 대한 차이이다. 홍천지역 방언에서는 상대경어법을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의 6화계를 모두 사용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 상대경

어법의 ‘해요’체의 ‘-요’를 ‘-유/-슈’로 쓴다.

(24)

① -a/ək : 발두둑 : 발두릭(patturək)

② -pak : 벽 : 벽름빱(pjərimp'ak)

③ -ɛŋji : 냉이 : 내생이(nasɛŋji)      토끼 : 퇴깡이(tʰək'ɛŋji)

돌 : 돌맹이(tolmɛŋji)      새 폐기 : 꼬깡이(k'ogɛŋji)

④ -i : 목침 : 몽치미(monɕʰimi)      고드름 : 고드레미(kodiremi)

홍천 지역어에서는 파생접미사의 첨가로 인해 만들어지는 단어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24)처럼 접미사 ‘-릭(-ək), -빱(-pak), -앵이(-ɛŋji), -이(-i) 등이 붙는 경우가 있다. 파생어의 형성이 표준어보다는 방언형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홍천 지역어에서는 많지 않다.

### 3.3. 어휘론적 특징

#### 3.3.1. 한자어로 교체

현대어는 한자어의 사용보다는 고유어를 많이 쓰면서 한글 전용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홍천 지역어에서는 고유어인 표준어를 한자어로 쓰는 경향이 있다. 한자어 사용은 피조사자가 방언조사 시 방언보다는 한자어를 쓰려는 의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25)

식혜 → kamɕʰu(甘酒)

그릇 → sikki(食器)

www.kci.go.kr

살강 → sɛnban(懸盤)

허리띠 → hyəkt'i(革-)

아우 → toŋsɛŋ(同生)

홀어미 → kwabu(寡婦)

풀무 → p<sup>h</sup>uŋgu(風-)

외양간 → magutk'an(馬廐間)

묘 → sanso(山所)

가을하다 → c<sup>h</sup>usuhada(秋收-)

(26)

시숙 → 시아주바니(siadzubani)

잡화상 → 잡화가게(caphwagage)

반면 (26)처럼 한자어를 고유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남편의 형제’를 뜻하는 ‘媿叔’을 ‘시아주바니’로 쓰며, ‘雜貨商’을 ‘잡화가게’로 쓴다.

### 3.3.2. 옛말의 유지

(27)

가위 → 가새(kasɛ)

회충 → 거시(kəsi)

산돼지 → 멧돼지(mettwədzɪ)

농기구 → 농쟁기(nonɔdzengi)

(27)처럼 홍천 지역어에서는 현대어 이전의 고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위’의 ‘가새(kasɛ)’는 ‘𠂆새’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경상도 방언이나 전라도 방언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회충’의 ‘거시(kəsi)’는 ‘거쉬 < 쪼위 < 것위’의 변화 과정을 거쳐 오는 어휘로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방언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산돼지’의 방언형 ‘멧돼지’의 ‘메’는 ‘산’을 예스럽게 이르

는 말이다. ‘농쟁기’는 ‘농기구’의 옛말인데 흥천지역에서는 현재도 쓰고 있다.

### 3.3.3. 제보자의 오류

아래 어휘들은 각 두 어휘들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도 흥천 지역인들은 다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8)

귀지 → 귀청(kyc<sup>h</sup>əŋ)

중부 → 백부(pekpu)

축 → 권(kwən)

다슬기 → 골뱅이(kolbeŋi)

방아깨비 → 방개(pañgɛ)

매 → 새매(sɛmɛ)

소입막이 → 멍(məŋ)

산마루 → 산봉우리(sanboŋori)

기습 → 산중턱(sandʒuŋt<sup>h</sup>ək)

수렁 → 웅덩이(uŋdəŋ)

얼레 → 연자세(yəndʒasa)

자루 → 자락(karak)

과줄 → 다식(tasik)

‘귀지’는 꿩구멍 속에 낀 때이지만 ‘귀청(kyc<sup>h</sup>əŋ)’은 고막을 말하는 것이고, ‘중부仲父’는 큰아버지라도 둘째 큰아버지로 ‘백부(pekpu)’와는 다르며, ‘축’은 오징어를 묶어 세는 단위지만 ‘권(kwən)’은 책 등을 세는 단위이다. ‘다슬기’와 ‘골뱅이(kolbeŋi)’는 크기가 다른 것이다. ‘방아깨비’는 메뚜기로 몸의 길이는 수컷이 5.4cm, 암컷이 8.9cm 정도이며 녹색 또는 회색에 머리끝이 뾰족하다. 뒷다리가 매우 크고 길어서 끝을 손으로 쥐면 방아처럼 끄덕거린다. 여름철 풀밭에 많은데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지에 분포하는 것이고, ‘방개’는 물방개과의 곤충으로 몸의 길이는

3.5~4.0cm이며, 검은 갈색에 녹색 광택이 나고 딱지날개의 가에는 노란 띠가 둘러 있다. 뒷다리는 길고 크며 털이 많다. 수컷은 앞다리의 발목마디가 부풀어 빨판 모양으로 되어 있다. 연못, 무논 따위의 물속에 사는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지에 분포한다. ‘방아깨비’와 ‘방개’는 다른 곤충이다. ‘소입막이’는 소가 다른 것을 먹지 못하게 입을 막는 물건이고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한다. ‘새매’는 ‘매’의 일종이다. ‘산등성 마루’는 산등성의 가장 높은 곳이고 ‘산봉우리’는 산에서 뾰족하게 높이 솟은 부분을 말한다. ‘기슭’은 산이나 처마 따위에서 비탈진 곳의 아랫부분을 말하며, ‘산중턱’은 산이나 고개, 바위 따위의 허리쯤 되는 곳을 말한다. ‘수렁’은 곤죽이 된 진흙과 개흙이 물과 섞여 많이 끈 응덩이이고, ‘응덩이’는 움푹 패어 물이 고여 있는 곳이다. ‘얼레’는 연줄, 낚싯줄 따위를 감는 데 쓰는 기구이고 ‘자새’는 새끼, 바 따위를 꼬거나 실 따위를 감았다 풀었다 할 수 있도록 만든 작은 얼레를 말한다. ‘자루’는 기름하게 생긴 필기도구나 연장, 무기 따위를 세는 단위이고 ‘가락’은 가늘고 길게 토막이 난 물건을 세는 단위를 말한다. ‘과줄’은 꿀과 기름을 섞은 밀가루 반죽을 판에 박아서 모양을 낸 후 기름에 지진 과자이고, ‘다식’은 녹말, 송화, 검은깨 따위의 가루를 풀이나 조청에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아 만들며, 흰색, 노란색, 검은색, 따위의 여러 색깔로 구색을 맞춘 것이다. 이처럼 이들 어휘들은 분명히 다른 형태인데, 이것을 잘못 인식하여 쓰는 것이다.

#### 3.3.4. 특이한 어휘

홍천지역 방언에서만 관찰되는 어휘상의 특징을 지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어휘들이 강원도 전체에 공통적으로 쓰이

는 것도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는 편협성도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모음이나 자음의 교체로 인한 어휘변화가 아닌 음운변화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어휘들을 정리해 본다.

(29)

벼훤이 → 짝개(c'ikke)	개상 → 태질(t <sup>h</sup> edʒil)
겨 → 커풀(k'əp <sup>h</sup> ul)	고명 → 꾸미(k'umi)
새알심 → 웅심이(oŋsimi)	땅벌 → 땡뻬(t'ɛŋp'i)
튀밥 → 쌀광쟁이(s'alkwaŋdʒɛŋi)	옛기름 → 질금(cilgim)
아궁이 → 보강지(pogandʒi)	부삽 → 비대이(pideŋi)
성냥 → 다황(tahwan)	열쇠 → 쇠때(sot'ɛ)
뒤곶 → 두락(turak)	잠방이 → 곰방주(kombaŋdʒu)
가부좌 → 올방구(olbangu)	곤지곤지 → 짹짹(c'akk'ũŋc'akk'ũŋ)
목말 → 무등(mudɛŋ)	작은막대 → 매투기(mɛt'ugi)
밑신개 → 안즌개(andyŋŋɛ)	벼슬 → 먼두(mjɛndu)
덧 → 쪼기(c'ɔgi)	진달래 → 참꽃(chamk'ot)
덩굴 → 덩불(tɛmbul)	달래 → 달롱(tarɔŋ)
변소 → 재간(cɛg'an)	천연두 → 마마(mama), 손님(sonnim)
귀알 → 풀솔(phulsol)	도깨비바늘 → 까막사리(k'amaks'ari)
거울 → 색경(sɛkk'jɔŋ)	이끼 → 바우웃(pauot) / 물이끼(mulik'i)

위의 특이한 방언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어휘는 설명을 붙여본다. '개상'은 벋단을 메어쳐서 이삭을 떨어내는 데 쓰던 농기구로 굵은 서까래 같은 통나무 네댓 개를 가로로 대어 엮고 다리 네 개를 박아 만드는 것

으로 강원도 지역에서는 ‘챗돌(chet’ol)’, ‘탯돌(thethol)’이 나타나는데, 홍천에서는 ‘태질(thedzil)’이라고 한다.

‘고명’은 음식의 모양과 빛깔을 돋보이게 하고 음식의 맛을 더하기 위하여 음식 위에 얹거나 뿌리는 것인데, 이것을 홍천에서는 ‘국이나 찌개에 넣는 고기불이’인 ‘꾸미(k’umi)’라고 한다. 팔죽 속에 넣어 먹는 새알만한 덩이로 보통 찹쌀가루나 수수 가루로 동글동글하게 만든 ‘새알심’을 홍천 지역에서 ‘옹심이(ongsimi)’이라고 한다. ‘아궁이’에 대하여 경기도 방언이나 충북 방언에 쓰이는 ‘보강지(pogandji)’를 홍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부삽’은 충청도와 경상도 방언에서 ‘비덴이(pidenji)’로 형성되는데, 홍천에서도 ‘비덴이(pidenji)’의 방언형이 쓰인다. ‘가부좌’는 부처나 중의 앉음새의 하나로 두 발을 구부려 각각 양쪽 허벅다리 위에 얹거나 한쪽 발만 얹고 앉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강원도 방언에서는 ‘올방구’로 쓰고 있다. 닭이나 새 따위의 이마 위에 세로로 붙은 살 조각으로 빛깔이 붉고 시율이 톱니처럼 생긴 닭의 ‘벧’을 홍천 지역에서는 ‘면두(mjendū)’의 방언형으로 쓴다. ‘진달래’를 ‘먹는 꽃이라는 뜻’의 ‘참꽃(chamk’ot)’으로 쓰고 있다. ‘변소’를 홍천에서는 경기도에서 ‘뒷간’의 방언형인 ‘재간’을 쓴다. ‘재간’은 재를 두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풀이나 옷을 칠할 때에 쓰는 솔로 돼지털이나 말총을 넓적하게 묶어 만든 것을 ‘귀얄’이라고 하는데 홍천에서는 ‘풀솔(phulsol)’로 쓴다. ‘도깨비바늘’은 다른 방언형에 비해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홍천 지역에서는 ‘까막사리(k’amaks’ari)’로 쓴다. ‘이끼’는 홍천 지역에서는 ‘바우옷(pauot)’의 형태로 쓰이는데, 이것은 ‘바위에 나는 옷’의 의미로 볼 수가 있으며, ‘물이끼’라고도 한다. 이상의 어휘들은 홍천 지역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어휘들인데, 표준어에 비해 의

미상으로 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어휘들이 있다.

### 3.4. 의미론적 특징

#### 3.4.1. 의미의 유사성으로 인한 교체

홍천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어휘들이 표준어에 비해 의미상 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어휘들이다.

(30)

디딜방아 → 발방아(palbaŋa)

흙손 → 흑칼(hik<sup>h</sup>al)

풀비 → 풀솔(p<sup>h</sup>ulsol)

다리쇠 → 구멍쇠(kuməŋsø)

용마름 → 용구세(yonguse)

반짓고리 → 반짓그릇(pandžitkirit)

긱볼 → 귀부랄(kybural)

소뽕질 → 소뽕장난(sok'opcaŋnan)

반딧불 → 개똥불(ket'oŋbul)

쇠죽바가지 → 쇠물꾸박(sømulk'ubak)

솔가지 → 검불(kəmbul)

후비다 → 파넨다(p<sup>h</sup>anenda)

#### 3.4.2. 의미영역의 차이로 인한 교체

홍천 지역어의 언어적 차이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많이 나타난다. 지역적·계층적 환경에서 동일한 언어기호가 그 의미 영역을 달리한다. 방언 조사 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제보자의 방언일 수도 있고, 조사자가 질문을 잘못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동일한 형식이 홍천 지역어에서는 어떠한 의미영역으로 나타나는지 몇 어휘를 선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1)

쟁기 → 연장(yendzan)

보습 → 버섭(pasap)

극쟁이 → 보구레(pogure)

(31)의 어휘들은 거의 비슷하여 방언 조사 시 조사자가 체보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만 방언형을 얻을 수 있다. ‘쟁기’는 논밭을 가는 농기구로 술, 성에, 한마루를 삼각으로 맞춘 것으로 술 끝에 보습을 끼우고 그 위에 한마루 몸에 의지하여 벼를 덧대고 성에 앞 끝에 줄을 매어 소의 멍에에 거는 것이다. 이것을 홍천에서는 ‘연장’이라고 하는데, ‘연장’은 어떠한 일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도구로 모든 농기구들을 의미한다. ‘보습’은 땅을 갈아 흙덩이를 일으키는 데 쓰는 농기구로 삼 모양의 쇠조각으로 쟁기나 극쟁이의 술바닥에 맞추어 끼우는 것이다. ‘극쟁이’는 땅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로 쟁기와 비슷하지만 쟁기숱이 곧게 내려가고 보습 끝이 무디다. 이 ‘극쟁이’를 ‘보구레’라고도 하는데, 홍천에서는 ‘쟁기’와 ‘극쟁이’의 방언으로 ‘보구레’를 많이 쓴다.

(32)

살강 → 선반(sanban)

시렁 → 선반(sanban)

이들 어휘는 대체로 홍천 사람들은 모두 ‘선반’이라고 부르고 있다. ‘살강’은 그릇 따위를 엮어 놓기 위하여 부엌의 벽 중턱에 드린 선반이고, ‘시렁’은 물건을 엮어 놓기 위하여 방이나 마루 벽에 두 개의 긴 나무를 가로질러 선반처럼 만든 것인데 이것을 모두 ‘선반’으로 부른다.

(33)

애벌 → 아이짐(aidʒim)

두벌 → 두벌짐(tubəldʒim)

‘아이’는 예전에는 ‘첫번째’라는 뜻이다. 중부방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중모음이 단모음화한 ‘애’가 사용되고 있으나, 홍천지역에서는 아직도 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이짐’의 ‘짐’은 ‘김매다’의 ‘김’에 구개음화형이다. 현대국어 ‘김매다’의 옛말인 ‘기슴미다’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기슴미다’는 ‘김’을 뜻하는 명사 ‘기슴’과 ‘다’를 뜻하는 동사 ‘미-’가 결합한 것이다. 16세기 이후 유성 마찰음인 ‘Δ’[z]이 소멸함에 따라 ‘기슴’이 ‘기음’이 되면서 ‘기음미-’가 되었다. 19세기까지 ‘기음미-’로 나타나다가 19세기에 ‘기음’이 축약되어 ‘김’으로 나타나면서 ‘김미-’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8세기에 제1음절의 ‘ㆍ’가 ‘ㅏ’로 변하고 이중 모음 ‘ㅑ’ 또한 이중 모음 ‘ㅓ’[ay]로 변하였다. 이후 이중모음 ‘ㅓ’[ay]가 다시 단모음 ‘ㅓ’[ɛ]로 변하였는데, ‘기슴미-’에 결합한 ‘미-’ 또한 이러한 변화를 겪어 ‘매-’가 되었다. ‘기슴’과 ‘미-’가 이러한 변화를 겪어 19세기에 ‘김매-’로 나타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34)

발채 → 소쿠리(sok<sup>h</sup>uri)/소고리(sogori)

‘발채’는 짐을 싣기 위하여 지게에 얹는 소쿠리 모양의 물건으로 싸리나 대오리로 둥글넓적하게 조개 모양으로 걸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끈으로 두 개의 고리를 달아서 얹을 때 지겟가지에 끼우는 것이고, 정선, 화천, 춘천, 태백, 동해 지역에서는 ‘소쿠리(sokhuri)’

의 방언형으로 쓰이는데, ‘소쿠리’는 ‘대나 싸리로 엮어 테가 있게 만든 그릇’으로 ‘발채’의 종류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성, 속초, 양구, 인제, 철원, 평창, 홍천지역에서는 ‘소쿠리’의 방언형인 ‘소고리(sogori)’가 쓰인다. 영월에서만 ‘발소구리(patsoguri)’의 방언형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홍천 지역에서는 ‘소쿠리’의 방언형인 ‘소고리(sogori)’가 쓰인다.

(35)

보늬 → 속껍데기(sokk'ǎptegi)

‘보늬’는 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속껍질이고, ‘속껍데기’는 겉껍데기 안에 껍으로 있는 껍데기를 말하는 것으로 아주 유사하다. ‘보늬’보다는 ‘속껍데기(sokk'ǎptegi)’가 일반적으로 쓰인다.

#### 4. 결론

본고는 강원도 홍천지역이 중부방언의 공통성을 지니면서도 차이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홍천 지역어의 음운, 어휘, 문법, 의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홍천 지역의 3개 면 5개 마을에서 7명의 제보자를 통해 홍천 지역어를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홍천 지역어의 음운, 어휘, 문법, 의미는 중부방언이기 때문에 중부방언의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음소에 있어서는 홍천군은 동쪽으로는 강릉시와 남쪽으로는 평

창군이 접해 있어서 주변 언어에서 성조를 습득할 수 있지만 성조는 나타나지 않으며, ‘어(ə)’를 ‘으:(i:)’로 발음하거나 ‘ㅋ(jə)’는 ‘ㄱ(ji)’로 바꾸어 길게 발음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둘째 자음의 교체 현상은 어두경음화, 격음화 현상은 남부방언보다도 덜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강원 지역의 방언과 비슷하게 일어나며, 특히 ‘ㄱ’이 ‘ㄷ’으로 변화하는 구개음화 현상은 경상도 방언이나 전라도 방언처럼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또한 경상도나 충청도 방언에 나타나는 소실문자 ‘ㅅ, ㅍ’의 흔적이 있는 어휘가 있는데 표준어에는 없지만 방언형에서 ‘ㅅ’과 ‘ㅍ’이 첨가되어 나타난다. 셋째 모음교체는 음라우트 현상이 다른 지역과 거의 같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모음의 교체는 전설모음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우세하다. 넷째 강원도 방언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자음 유지 현상은 ‘ㄱ(k)’음 첨가가 많은 편이고, 다른 것은 표준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섯째 어휘의 특징을 보면 고유어의 어휘를 한자어로 교체한 경우가 대단히 많았으며, 고어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보인다. 여섯째 어휘의 의미적인 면에서 방언형이 표준어에 비해 대상을 더 명확히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며, 의미영역을 달리하는 몇 가지 어휘들을 검토하였는데 표준어와 비교하여 세분화된 어휘들이 있었고, 전혀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홍천 지역 방언은 표준어와 많이 유사하며, 홍천군 내면<sup>內面</sup> 지역은 강릉지역의 방언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조사질문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1980.

### 2. 단행본 및 논문

최학근, 『국어방언학』, 보경문화사, 1988.

남기탁 외, 『강원전통문화총서: 방언』, 국학자료원, 2002.

박성중, 「강원도 방언의 성격과 특징」, 『방언학과 국어학』, 태학사, 1998.

이상규, 『강원방언』, 『방언학』, 학연사, 1995.

김주관, 「문화자료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9(2), 역사문화학회, 2006.

강홍규, 「삼척방언 성조와 음조에 대한 연구」, 『개신어문연구』 20, 개신어문학회, 2003.

\_\_\_\_\_, 「삼척방언과 울진방언 성조체계의 비교」, 『언어학연구』 8, 한국중원언어학회, 2004.

김만기, 「양양방언의 고찰: 음운론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김봉국, 「강원방언의 성조」, 『방언학』 28, 한국방언학회, 2018.

\_\_\_\_\_, 「강원방언의 특징과 그 보존 방안」, 『인문학연구』 28,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2020.

김옥영, 「남북 강원 지역의 방언구획」, 『국어학』 92, 국어학회, 2019.

김주원, 「강원도 동해안 방언 성조의 특성」, 『민족문화논총』 27, 영남대학교, 2003.

김차균, 「삼척 방언과 울진 방언 성조의 비교」, 『언어학』 22, 한국언어학회, 1998.

\_\_\_\_\_, 「삼척 방언과 울진창원 방언의 성조 체계 비교」, 『한글』 268, 한글학회, 2005.

원훈의, 「강원도 방언연구(5): 홍천군 방언의 음운을 중심으로」, 『논문집』 28, 춘천교육대학, 1988.

\_\_\_\_\_, 「강원도 방언연구(5-2): 홍천군 방언의 어휘를 중심으로」, 『관동향토문화연구』 6, 춘천교육대학, 1988.

이익섭, 『영동-영서의 언어분화』, 서울대 출판부, 1981.

\_\_\_\_\_, 『방언학』, 민음사, 1984.

정호완, 「강원도 홍천 방언의 음운체계 연구: 내면지방을 중심으로」, 충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최영미, 「정선방언 운율유형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73, 어문연구학회, 2012.

\_\_\_\_\_, 「평창방언 체언의 성조 연구」, 『한말연구』 35, 한말연구학회, 2014.

\_\_\_\_\_, 「평창 방언의 성조 연구」, 『한글』 308, 한글학회, 2015.

\_\_\_\_\_, 「평창방언 용언의 성조 연구」, 『겨레어문학』 54, 겨레어문학회, 2015.

\_\_\_\_\_, 「강원방언 성조의 인지에 대한 방언차 연구」, 『한말연구』 46, 한말연구학회, 2017.

최윤, 「남북 사건의 강원 방언 비교 연구: <우리말샘>과 조선말대사전(2017)의 표제어를 대상으로」, 『어문논총』 40,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 2022.

## Abstract

### A Study on the Linguistic Culture of Hongcheon Area in Gangwon-do

Choi, Hong-Yeal \*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Hongcheon region's language in terms of phonetics, vocabulary, grammar, and semantics, under the premise that the Hongcheon region in Gangwon-do has commonalities with the central dialect, but that differences are likely to be highlighted. For this purpose, the Hongcheon local language was investigated through 7 informants from 5 villages in 3 myeons in the Hongcheon region.

Overall, the phoneme, vocabulary, grammar, and meaning of the Hongcheon local language do not deviate significantly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central dialect because it is a central dialect. To summarize them, First, tones do not appear in phonemes, and 'ㅏ (ㅑ)' is changed to 'ㅓ:(ㅕ:)' and 'ㅓ (ㅑ)' is pronounced long by changing to 'ㅓ:(ㅕ:)'. Second, the phenomenon of consonant replacement, including pre-aspirated and aspirated consonants, occurs less frequently than in southern dialects, but occurs similarly to other dialects in the Gangwon region. In particular, the phenomenon of palatalization, where 'ㄱ/k/' changes to 'ㅈ/c/', occurs widely. Third, the umlaut phenomenon occurs with almost the same frequency as in other regions, and most vowel replacements are predominantly replaced by front vowels. The fourth characteristic of the vocabulary is that there were many cases where native language vocabulary was replaced with Chinese characters, and archaic words were also maintained. Fifth, in terms of the semantics of vocabulary, there are cases where the dialect type explains the object more clearly than the standard language, and several vocabulary words with different meaning areas were reviewed, and compared to standard language, there were some words that were more detailed, and there was also a tendency to recognize them as being completely different.

Keywords    dialect, Hongcheon Area, phonology, grammatical, semantics

이 논문은 2023년 1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2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Kangwon National University.